

<빠른 정답>

1페이지

31. ②

32. ④

33. ②

34. ④

2페이지

31. ③

32. ②

33. ③

34. ①

3페이지

31. ②

32. ①

33. ④

34. ⑤

4페이지

31. ④

32. ③

33. ②

34. ②

5페이지 좌

41. ⑤

42. ①

5페이지 우

41. ④

42. ②

<해석과 해설>

1페이지

31. ②

[해석] 표현적, 수용적 언어 능력의 발달상의 한계, 제한된 어휘 지식, 그리고 추상적 사고력에서의 한계는 어린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아마도 문헌상에 기술된 놀이의 주요한 치료의 힘[치유력]은 그것의 의사소통 능력일 것이다.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은 자신들의 의식적 생각과 느낌을 말로만 표현할 때보다 놀이 활동을 통해서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아이들은 구체적인 놀이 활동과 도구[용구]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선천적으로 편안히 여긴다. 인형과 꼭두각시를 통한 상징적인 묘사와 표현의 사용은 감정이 격했던 경험과 생각, 그리고 느낌들로부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게 만든다. 놀이에서의 간접적 표현을 통해 아이는 힘든 감정과 기억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고 치유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해설] 어린아이들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말보다는 놀이 활동을 통해 생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인형과 꼭두각시 같은 도구를 통해 표현하는 것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놀이에서의 빈칸과 같은 표현을 통해 아이는 의사소통을 더 편히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빈칸에는 ‘놀이 도구를 이용하는’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1번은 간단한 표현인데, 여기서 도구가 더 간단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2번은 간접적 표현입니다. 흔히 말하는 의사소통은 말로 주고받거나 글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형식인데, 이런 것들이 아닌 놀이 도구를 이용하는 의사소통은 간접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이들은 본인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이나 글로써 직접 표현하지 않고 놀이 도구를 통해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일관된 표현인데, 이것이 놀이 도구를 통한 의사소통의 장점은 아닙니다. 4번은 무작위의 표현인데, 이는 내용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5번은 공감하는 표현인데, 글에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출처] 2018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특강 26강 4번

32. ④

[해석] 어떤 것을 상징이나 조작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을 꽤나 추상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묘사가 애매하고, 형태가 없고, 심지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그렇다 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세부사항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기를 위한 모터를 명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자. 한 기술자는 각 작은 부분들의 정확한 모양,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부착되는 지 등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표현할 것이다. 그것은 추상적인 것의 반대인 “구체적인” 묘사가 될 것이다. 다른 기술자는, 그러나, 오로지 최소한의 필요한 마력, 어떤 위치에 들어맞아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용히 가동되어야 하는지만을 명기할 것이다 - 세부사항들은 모터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모터는 철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고, 둥글거나 네모날 수 있고, 하나의 물리적 원리 또는 다른 원리에 입각할 수 있고, 여전히 추상적인 사양을 정확히 만족시킬 수 있다.

[해설] 이 글은 추상적인 묘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칸에는 추상적 묘사의 특

정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빈칸 뒤의 문장부터는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 묘사와 반대되는 구체적인 묘사의 경우, 자잘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설명을 해놓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반면 추상적인 묘사의 경우는 최소한의 필요한 요건들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디자이너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빈칸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1번은 장점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므로 빈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번은 묘사가 정확하다는 것인데 정반대 내용입니다. 3번은 불충분한 부분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 맞추어 보면 불충분한 부분들은 세부적이지 않은 부분들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채운다는 것은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명기한다는 의미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과 반대되는 선지입니다. 4번은 불필요한 세부사항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세부사항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요건 이외의 내용들을 일컫는 것이고 그것이 제외된다는 것은 제외된 것들은 디자이너에게 맡긴다는 의미이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오직 기술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글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출처] John Haugeland - Artificial Intelligence: The Very Idea

### 33. ②

[해석] 최근에 어떤 학습 방법이 복합시스템의 조작, 인공 문법 학습, 그리고 반복 학습을 포함하는 넓은 분야의 실험적 양식에서 연구되었다. 이 상황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점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꽤나 복잡한 자극 환경의 구조에 대해 학습한다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결과로 나온 지식이 표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복합시스템의 조작의 경우, 사람들은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 기반을 둔 근거를 인지하지 못하고도 명시된 정도의 목표 변수에 도달하고 유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명백한 암호 해독 전략을 차용하지 않고도 그리고 그들이 이용하는 어떠한 규칙들 또는 그들이 응답하는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도 인공 문법의 전형들을 분류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고, 자극의 순차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해설] 이 글에서는 어떠한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습 방법을 이용한 여러 예시를 주었는데, 이 예시들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됩니다. 복합시스템의 조작의 경우에서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는 데에 기반을 둔 근거를 인지하지 못하고도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고, 인공 문법 학습의 경우에도 사람들은 명백한 암호 해독 전략을 사용하거나 그들이 이용한 규칙들이나 응답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지식은 습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데에 기반을 둔 근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감각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 당연한 것을 설명할 때 아니 이건 당연한 거잖아? 무슨 설명이 필요해?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명백한 암호 해독 전략을 차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략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전략이 있기는 있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축구로 비유하자면 4-3-3 전략과 같이 눈에 보이는 전략이 아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용하는 규칙들과 응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지식을 얻을 수는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1번은 지식이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글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2번은 결과로 나온 지식이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빈칸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이전의 지식이 새로운 것과 모순이 된다는 것인데 글에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4번은 얻어진 지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글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5번은 그 사람이 그가 무언가를 배웠다고 믿도록 본인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사뭇 다릅니다. 글에서는 학습을 분명히 한 상태이지만 나타내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5번 보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을 하지 않았지만 했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즉 학습 여부부터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어긋납니다.

[출처] Dianne Berry, Zoltan Paul Dienes - Implicit Learn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34. ④

[해석] 종교 개혁의 이상 파괴는 신성한 그림들의 보호하는 벽에 금이 가게 만들었고, 그 후 그림들은 잇달아 바스러져 갔다. 그들은 자각시키는 이성과 충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사람들은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혹은 그들이 정말로 잊은 것이었을까? 사람들이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었고, 오직 최근에 들어 사실 우리는 처녀 잉태설, 그리스도의 신성함, 그리고 삼위일체의 복잡함을 통해 그것이 의미하고자 하던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신교도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는 거의 그 그림들이 그냥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존재가 단순히 이의 없이 그리고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전형적인 그림들은 그들 자신이 너무 의미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들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설] 꽤나 어려운 지문입니다. 하지만 답을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에서 이상 파괴를 통해 많은 그림들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잊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애초에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그 의미 자체를 당연히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라고 중간 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고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었겠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만 캐치할 수 있다면 문제 푸는 데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빈칸 문장에서는 그림들이 너무 의미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은 빈칸을 했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빈칸에는 이의 없이 당연하게 의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never think of asking what they really do mean'이 됩니다. 2번의 경우는 반대 내용이 될 것입니다. 1번은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오답이 되고, 3번도 신성한 본성과 그림들을 연관시킨다는 것인데 매우 뜬금없는 이야기이고, 5번의 경우 그림들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오답입니다.

[출처] C. G. Jung -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31. ③

[해석] 연구 결과들은 집단 또는 팀의 실적 수준은 그것의 열망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

다고 제안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대개 우리가 열망하는 수준까지 성취한다고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다른 태도의 특징들처럼, 그것의 대부분은 마음가짐이다. 팀의 사고방식의 풍조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의 궁극적인 실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코치들과 군 사령관들은 태도가 종종 실체가 있는 자원들보다 결과물을 결정하는 데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훌륭한 장군 Dwight D. Eisenhower가 말하길, “비관적인 생각은 어떠한 전투도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 사실, 리더십에서의 더 높이 여겨지는 업적들 중 하나는 지도자들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들 중 두 개를 “공유된 비전을 격려하는 것”과 “마음을 고무시키는 것”이라고 밝힌다.

[해설] 이 글의 핵심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팀의 실적을 내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에 관해 했던 말은 “긍정적인 태도가 좋은 결과를 내는 데에 중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빈칸 문장에서는 빈칸이 그 어떤 전투도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 곧 부정적인 결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빈칸에는 부정적인 태도가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Pessimism입니다.

[출처] Frank LaFasto, Carl Larson - When Teams work Best: 6,000 Team Members and Leaders Tell What it Takes to Succeed

### 32. ㉔

[해석] 지적 생활은 전적으로 대면하는 상황에 달려있는데, 상호 작용 의례는 이러한 수준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적인 신성한 목적들은 그들을 숭배할 의식의 모임이 있을 경우에만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이 강의, 회담, 토의, 그리고 토론들이 하는 일이다: 그것들은 지적 공동체를 소집하고, 특유의 방식으로 그들만의 공통된 목적에 구성원들을 집중시키고, 그 목적들을 둘러싼 독특한 감정들을 창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인들의 모임을 다른 종류의 상호 작용 의례와 구분 짓는 것은 무엇인가? 한 차이점은 주목의 구조에 있다. 핵심이 되는 지적인 일은 한 개인이 특정 주제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발언을 하는 시간인 강의 또는 공식적인 토론이다. 이것은 초점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떠한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단계에 도달할 수 없는 사교적인 대화들의 쌍방 교환과는 다르다. 지식인들이 30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한 관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담화의 통일된 흐름으로 발전되어, 그럼으로써 주제를 일반적인 사교적인 유대의 작은 단편적인 징표들보다는 더 크고, 많은 것을 아우르는 신성한 목표로 승격시킨다.

[해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지적인 지를 결정하는 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에 집중을 하고 그를 둘러싼 감정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호 작용 의례와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집중의 구조라고 합니다. 강의나 토론은 지적인 것인데,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이와 달리 지적이지 않은데, 빈칸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의와 토론 같이 한 사람이 30분 또는 그 이상 동안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주제를 더 넓은 것을 아우르는 목표로 그 주제를 승격시킬 수 있는 반면 일반적인 사교적 유대, 곧 일반적인 대화들은 작은 단편적인 징표라고 하였는데, 한 사람이 말을 그렇게 오래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일반적인 대화의 특성인 한 사람이 말을 오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1번은 너무 오랜 시간이 소모된다는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2번은 초점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초점이라는 것은 곧 말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고 이것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오랜 시간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번은 정답입니다. 3번은 주제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오답입니다. 4번은 아무도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말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이 대화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번은 관점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오히려 한 주제에 관해 말하는 것이 지적이라고 하였으므로 관점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은 지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따라서 5번도 오답이고, 정답은 결론적으로 2번입니다.

[출처] Randall Collins - The Sociology of Philosophies

### 33. ③

[해석] 많은 교육자들, 특히나 실증주의적인 방식의 연구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이들이 노골적으로 그들의 일에서의 이념의 역할을 부인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 그들은 이념적으로 그들의 단체 내에서 그 어떠한 반대되는 담화의 발달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Paulo Freire가 지적하길, 만약 이러한 교육자들이 예를 들어, 과학에 대한 태도를 주장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이 과학적 추구의 중립성이라고 여기는 것에 ‘숨으려고’ 할 것이고, 그들의 발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무관심할 것이고, 심지어는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또는 어떤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데에도 무관심할 것이다.” 많은 교육자들이 사실 “자연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필수적으로 불박이인 자기비판, 회의론, 그리고 엄격함을 배제시킨 채, 그들은 무비판적으로 사회과학에서의 그들의 일에서 “중립” 입장을 채택하려고 할 것이다. 사실은, 과학은 적절한 자기비판, 회의론, 그리고 논쟁이 없다면 진화할 수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 비평과 논쟁의 담화는 자주 사회과학과 교육에서의 “객관성”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비춰진다. Freire가 주장하듯, 이러한 교육자들은 “마치 그들이 그 안의 참여자가 아니라는 듯이 연구 중인 사회를 다룰 것이다.” 그들의 유명한 공명정대함에서, 그들은 마치 그들이 오염을 시키거나 그것(현실 세계)에 의해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마냥 이 현실 세계에 접근할 것이다.

[해설] 이 글에서는 많은 교육자들이 연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중립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고 있고, 파울로 프레이리는 이를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교육자들은 자기비판, 회의론, 엄격함 등을 무시하고 사회과학에서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면 과학은 진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게 자기비판, 회의론, 엄격함, 논쟁 등은 객관성을 오염시킨다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프레이리는 이러한 연구자들을 놓고 빈칸과 같다고 말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객관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보기의 it은 사회고, they는 교육자들입니다. 1번은 사회를 만약의 근원이라고 여긴다고 하는 것인데,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사회를 나쁘게 바라보는 것과 어긋납니다. 2번은 연구자들이 사회의 지도자들인 마냥 사회를 다룬다는 것인데, 교육자들이 사회를 이끈다는 내용은 글에 없습니다. 3번은 교육자들이 사회의 참여자가 아니라는 마냥 사회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즉, 교육자들은 사회와 무관한, 제3자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겠다는 소리이므로 이는 객관성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사회 없이는 교육자들이 살 수 없을 것처럼 사회를 다룬다는 것인데, 이는 글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니다. 5번은 교육자들이 사회의 헌신적인 돌보미인 마냥 사회를 다룬다는 것인데,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에 손을 떼겠다는 것이므로 5번은 오히려 반대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답은 3번입니다.

다.

[출처] Paulo Freire - Pedagogy of Freedom: Ethics, Democracy, and Civic Courage

34. ①

[해석] 희망 홀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순진함 속에서 행해진 행동들은 절망, 비관주의, 그리고 체념으로의 훌륭한 길이다. 하지만 세상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자, 마치 그 노력이 단독으로 계산된 행동이나 순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축소될 수 있을 것 마냥, 희망 없이 시도하는 것은, 바보 같은 환상이다. 진실을 노력의 윤리적인 질로써의 필요로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희망이 없는 채로 하려고 하는 것은, 노력이 그것의 중추 중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없다. 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희망은, 존재론적인 필요로써, 실행에 정박하는 것이 요구된다. 존재론적인 필요로써, 희망은 역사적 명확함이 되기 위하여 실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순전히 희망에 찬 것에는 희망이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원하는 것은 생짜의 기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마냥 기대만 하는 것은 헛되이 기대하는 것이다.

[해설] 글에 단어들도 상당히 어렵고, 해석도 꽤 힘든 문제일 듯합니다. 하지만 글의 요점만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첫 문장에서는 희망 홀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 없이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역시나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문장은 네 번째 문장부터입니다. 희망은 실행에 정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anchor의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어, 뒤에서 재진술을 합니다. 희망은 실행이 있어야만 역사적 명확함, 곧 의미 있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글의 내용을 꿰뚫습니다. 희망 홀로는 세상을 못 바꾸고, 그렇다고 희망 없이는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희망을 실행에 옮기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빈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빈칸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신시켜 주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날것의 희망, 곧 아무것도 없이 희망하는 것으로는 얻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기대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글의 주제는 희망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희망도 없으면 안 되고, 실행이 뒷받침되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실행이 없는 희망은 쓸모없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번은 순진한 바라기, 곧 실행이 없는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므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은 노력을 줄이면 희망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은 늘 희망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글에서의 요점은 희망이 아니라 실행을 동반한 희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번은 글의 요지에 어긋납니다. 4번은 너무 많은 실행은 희망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글의 내용과 반대됩니다. 5번은 비관주의가 낙천주의보다 권장된다는 것인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글의 내용에 맞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출처] Paulo Freire - Pedagogy of Hope: Reliving Pedagogy of the Oppressed

31. ②

[해석] 반사회적 인격은 대중문화에서 두려움의 원천과 선망의 대상으로 자주 받아들여진다. 그에 따라, 그것에 관한 오해들이 자주 발생한다. 종종, 아마도 호기심과 혐오감의 혼합

에 의해 이끌려, 우리는 그(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사람)의 범죄와 비행의 솔직하지 않음, 상스러움, 그리고 잔인함에 매료되곤 한다. 다른 때에는, 우리는 그의 감지할 수 있는 자유와 반항적인 규칙의 거부에 대한 전망에 동기를 부여받기도 한다. 가끔, 우리는 그의 이상한 행동에 즐거움을 느낀다 - 그것이 무해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말이다. 반사회적인 사람에의 관심은 개인의 자유가 높은 평가를 받는 문화에서는 특히 강할 것이다. 반사회적인 사람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 그리고 절대로 버릴 수 없을 - 것이라 여기는 책임들을 회피하는 궁극적인 개인주의자이다. 이러한 믿음들은 반사회적 인격, 또는 ASP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수백만의 목숨을 건드리는 병적인 장애라는 사실을 가린다.

[해설] 글을 제대로 안 읽었다면 빈칸에 잘못된 답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ASP는 전망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들에 우리는 열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문장에서 “오해”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ASP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오해”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놓쳤다면 3번을 답으로 썼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 때문에 이것이 병적인 장애라는 중요한 점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1번부터 차례로 넣어봅시다. 1번은 ASP를 좋게 바라보는 것이 병적인 장애라는 주장을 증명한다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은 ASP를 좋게 바라보는 것이 병적인 장애라는 사실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질환임을 단순한 전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중요치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므로 2번은 정답입니다. 3번은 ASP를 좋게 바라보는 것이 병적인 장애라는 걱정을 줄게 한다는 것인데, 이 글의 핵심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은 오답임을 알아야 합니다. 4번은 ASP를 좋게 바라보는 것이 병적인 장애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만들어졌어도 장애라는 환상이 아니라 좋은 환상이 만들어졌을 것이므로 오답입니다. 5번은 ASP를 좋게 바라보는 것이 병적인 장애라는 관점을 포용한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Donald W. Black - Bad Boys, Bad Men: Confronting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Sociopathy)

### 32. ①

[해석] 무질서의 개념의 루소의 이용의 분석은 불평등이란 의문에 대한 숙고를 이끈다. 루소에게 있어, 불평등은 도덕적 불평등, 다시 말하자면, 지역 사회의 눈으로 볼 때 개인들이 향유하는 지위에서의 불평등의 형태를 택할 때 정치적 이론에의 문제를 나타낸다. 이런 관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의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개인의 주체성은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대해 가진 의견들의 산물이고 따라서 개인들 간의 비교의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자연 상태에 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의 주체성에 대해 논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이 중요성을 띠게 되면, 각각은 그들의 또래들을 뛰어넘는 우월함을 성취하기 위해, 아니면 그것보다는, 그들의 우월함을 다른 이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승격을 추구하게 된다.

[해설] 이 글에서는 개인의 주체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지역 사회에서의 개인의 계급 간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장은 개인의

주체성이 다른 이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개인의 주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 문장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예시를 들었는데, 이 경우 이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주체성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혼자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주체성이란 개념이 발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문장에서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승급을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승급은 무슨 연관이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된 inequality in the status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급이 올라가는 것, 즉 계급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개인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글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무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기 위해서 선지를 보면 1번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즉 개인의 정체성이란 것을 모른다는 뜻이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2번은 합리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홀로 있는 상태에서는 (타인과의)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은 글의 내용과 어긋납니다. 3번은 그 자신의 개인의 정체성을 박탈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오답 선지로 만든 것입니다. deprive of는 ‘~를 빼앗다, 박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빼앗거나 박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즉 이 선지는 홀로 사는 그 사람들이 애초에 개인의 주체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빼앗기거나 박탈을 당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 글의 내용에 따르면 홀로 사는 사람들은 개인의 주체성이란 개념 자체를 지닐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1번과 이 선지를 헷갈렸다면 미묘한 차이를 파악할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4번은 본인이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우월하다고 여긴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글의 내용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5번은 불평등에 대한 지속적 질문을 던진다는 것인데, 불평등은 개인의 주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답은 1번입니다.

[출처] Maurizio Viroli - Jean-Jacques Rousseau and the ‘Well-Ordered Society’

### 33. ④

[해석]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언어학적 질문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용과 오용에 관한 질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매일의 언어에 관한 담화는 무엇보다도 평가를 하는 담화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러한 가치가 최우선시 되는 관심사는 언어에 대한 비전문적인 담화를 언어학자의 전문적인 담화와 분리시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과학자로서, 전문적인 언어학자들은 도덕적 판단이 아닌 객관성을 갈망한다. 그러므로 Conway Hall의 남자가 나에게 언어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언어학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언어학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언어학은 기술(記述)적이지, 규범적이지 않다.’라는 교과서 답변을 할 수는 없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무례했을 것일 뿐만 아니라, 내 대화 상대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 또는 이런 것 같은 것을 말할 수 없었다.

[해설] 이 글의 핵심은 비전문가와 전문가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전문적인 담화와 전문적인 담화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가 우선시되는 지입니다. 비전문가들의 경우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용과 오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즉 가치가 개입된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 곧 언어학자들의 경우는 이의 반대이므로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빈칸 문장 이후를 보면 글쓴이가 언어학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경우는 언어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언어학자들이 무엇을 하느냐는 ‘비전문가’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용과 같은 가치가 개입된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빈칸에는 언어학자 같은 전문가들은 가치 판단에는 관심이 없고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다는 것이 들어가면 됩니다. 1번은 비전문가들을 평가할 때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비전문가들을 평가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은 언어의 오용을 보면 참지 못한다는 것인데, 가치가 개입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하므로 오답입니다. 3번은 언어의 윤리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윤리는 가치가 개입된 것이므로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피상적인 이해조차도 언어학자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4번은 도덕적 판단이 아닌 객관성을 갈망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정확한 답입니다. 5번은 언어의 적절한 사용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만든다는 것인데, 어쨌든 가치 판단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언어학자들이므로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답은 4번입니다.

[출처] Deborah Cameron - Verbal Hygiene

34. ⑤

[해석] 1923년 Kanto에서 발생한 지진은 강한 흔들림과 널리 퍼진 지속적 지반변위를 초래하였다. 전반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Tokyo와 인접한 도시들로의 주요한 물 공급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 분배 시스템들은, 반면, 주로 땅 하층부의 작은 파이프들에, 많은 손상을 입었다. 분배 시스템의 고장에도 불구하고, 이 대참사에서 손상의 주체였던, 발생한 대화재들은, 주로 비(非)지진 요인들로 인한 것이었다. 이들은 화재가 나기 쉬운 건축 환경과 극히 좋지 않은 발화 시나리오와 기상 조건들로 인한 것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진으로 인한 급수 시설 손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부족했을 것으로 판명 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설] 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빈칸을 고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Kanto에 지진이 났는데, 주요한 물 공급에는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분배 시스템에 손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배 시스템 고장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주된 원인은 지진 때문이 아닌 건축 환경이나 날씨 같은 지진과 관련 없는 요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는 소방대가 별 도움이 안 되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빈칸이 있는데, 보기 상태를 보아하니 여기에는 특정 조건을 추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소방대는 물을 받아와야 불을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합시다. 그리고 지진과 관련된 요인보다 지진과 관련 없던 요인이 더 중요했다는 것도 명심을 합시다. 지진과 관련된 요인 = 물 배분 시스템 고장, 지진과 관련 없는 요인 = 건축 환경, 나쁜 발화 시나리오와 날씨입니다. 1번부터 천천히 봅시다. 1번은 “물 배분 시스템의 문제들을 고려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줍니다. 하지만 글의 내용은 물 배분 시스템 고장이 주요 원인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2번은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데에 실패하였기 때문에”라는 조건을 달아줍니다. 그러나 화재 원인 조사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2번대로 라면 소방대가 화재의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물 배분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화재가 난 것인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여서 불을 진압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님

니다. 소방대는 물 배분 시스템이 고장 나서 불을 진압하지 못하긴 하였는데 애초에 비지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틀렸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황을 반대로 뒤집어 봅니다. 만약 원인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소방대가 불을 진압하는 데에 성공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아 이 지진은 비지진적 원인 때문에 심각해진 것이다!”라고 밝힌 들 소방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로 2번이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3번은 “지진 자체가 물 공급에 최소한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아줍니다. 즉 지진이 물 공급에 영향을 거의 안 주었다면 소방대가 불을 제대로 진압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supply와 distribution system은 글에서 구분을 해놓았으므로 3번에서 말하는 것은 분배 시스템을 통해 물을 받아오는 것의 문제가 아닌 애초에 저장해놓은 물을 일컫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글에 따르면 지진이 났음에도 물 공급 자체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가정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3번은 오답입니다. 4번은 “내화성의 건축 방식이 사전에 준비됐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건을 달아줍니다. 그러나 이 선지는 글의 내용과 어긋납니다. 비지진적 요소 중 하나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건축 환경입니다. 즉 내화성의 건축 방식은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4번도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은 “지진으로 인한 급수 시설 손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라는 조건을 달아줍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water system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급이고 하나는 분배 시설입니다. 그런데 손상이 있던 것은 후자이므로 water system damage는 분배 시설의 손상을 일컫는 것이겠죠. 즉 분배 시설 손상이 없었다더라도 소방대는 화재 진압을 못했을 것이라는 선지가 됩니다. 앞서 비지진적 요인이 화재에서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배 시설 손상이 있으나 없으나 여전히 화재 진압은 어려웠을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출처] Charles Scawthron, John M. Eidinger, Anshel Schiff - Fire Following Earthquake

#### 4페이지

#### 31. ④

[해석]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인공물’의 가장 간단명료한 정의는 인공물은 인간의 의도성의 물질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의도성을 표현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인공물의 생산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숫자와 더하기와 빼기의 법칙은 계산과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지만 그것들이 비록 주판이나 전자계산기와 같은 인공물의 생산을 초래할 수 있다 해도 그것들 자체가 인공물은 아니다. 노래와 춤과 같은 의도적으로 실행되는 아주 많은 활동들은 인공물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다. 다는 아니지만 몇몇 기술들은 인공물로 이어지긴 하지만, 기술들 자체는 인공물과 구분되어야 한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목소리, 폐, 신체의 다른 관련 기관의 조절을 이용하는 기술만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레코드 판, 테이프, 또는 CD로 녹음된 노래의 작동은 그것의 생산이 결국 마이크와 다른 기계와 같은 더 나아간 형태의 인공물을 수반하는 인공물이다.

[해설] 글에서 인공물인 것과 인공물이 아닌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하기와 빼기의 법칙, 노래를 부르는 것과 춤을 추는 것은 인공물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술로 취급되고 인공물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주판, 전자계산기, 레코드 판, 테이프, CD, 마이크 등은 인공물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기술들과 구분되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다. 더하기와 빼기의 법칙, 노래를 부르는 것, 춤을 추는 것은 물질적으로 표현이 불가능

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물질적인’ 등이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material’입니다.

[출처] 2017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특강 20장 3번

32. ③

[해석] 비록 우리 모두 세상을 감지하는 데에 동일한 신체적 장기를 - 보는 데에 쓰이는 눈, 듣는 데에 쓰이는 귀, 냄새를 맡는 데에 쓰이는 코, 느끼는 데에 쓰이는 피부, 그리고 맛보는 데에 쓰이는 입 - 가지지만, 언어 전문가 Edward Sapir와 Benjamin Lee Whorf에 따르면 우리의 세상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단히 많이 의존한다고 한다. 그들은 언어는 우리가 특정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쌍의 안경과 같다고 상정한다. 언어와 인식 간의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눈이라는 단어다. 에스키모 언어에는 눈을 뜻하는 32개의 서로 다른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 에스키모 족은 내리는 눈, 바닥에 쌓인 눈, 얼음만큼이나 단단히 다져진 눈, 반 정도 녹은 눈, 바람에 흩날리는 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짜라기눈”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하는 각각 다른 단어가 있다. 반면 멕시코의 고대 아즈텍 언어에서는 눈, 추위, 그리고 얼음을 나타내기 위해 오직 한 개의 단어만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만약 Sapir와 Whorf가 옳고 우리가 오직 우리가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 것들만 인식할 수 있다면, 아즈텍들은 눈, 추위, 얼음을 하나로 그리고 같다고 받아들였다.

[해설] 이 글에서 세상에 대한 인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언어에서 비슷한 것에 대한 다양한 단어들 존재한다면 그것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에스키모 족에 대한 예시를 통해 보여주었고, 아즈텍의 경우는 그 반대 케이스입니다. 아즈텍은 눈, 추위, 그리고 얼음에 대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글에 내용에 따르면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므로 아즈텍은 눈, 추위, 얼음을 동일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perceived snow, cold, and ice as one and the same’입니다.

[출처] YBM 고등학교 Advanced English Reading I

33. ②

[해석] 미국의 천문학자 Frank Drake가 수행한 Ozma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해서, 외계 생명체의 탐사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로 남아있다. 천문학자들은 바깥 세계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우주 공간으로 신호를 전송하고 있다. 이것은 외계인들이 상당히 발전된 기술적 기반을 지니고 있어 메시지를 재전송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이라는 가정을 밑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만약 그 생물체들이 “그렇게나” 지적이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탐사를 현재 실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외계인들에게는, “우리”가 외계인이고 “그들”이 탐색자일 것이다. 탐색자로서의 그들은 지구의 과학자들만큼이나 점차 “외계인”을 찾기 위한 레이더를 확장시킬 것이다. 두 레이더들이 결국 서로에게 접하게 된다면, 지구의 사람들과 우주의 생명체들은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될 것이지만, “누가 누구를 찾았는지”에서의 주어와 목적어는 정의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는 제가 수험생 시절 독서실에서 자습을 마치고 집에 오던 길에 떠올려 만들게 된 자작 지문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글의

내용은 외계 생명체에 관한 것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꾸준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는 외계인들이 이 신호를 받아서 회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 하여 생각해 보면, 그렇게나 똑똑한 외계인들이 그저 누군가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외계인들이 직접 신호를 보내서 그들 입장에서의 다른 외계 생명체, 즉 지구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양측이 그들의 탐색 레이더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글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두 레이더들이 만나게 될 것이겠죠. 그 때 지구의 사람들과 우주의 생명체들이 만나게 된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글에 따르면, 지구 사람들의 입장에서나 우주의 생명체들이 “외계” 생명체인 것이지, 레이더를 쏘는 우주의 생명체들 입장에서는 지구 사람들이 “외계” 생명체라고 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양측에서의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점이 다를 것이다, 양측 모두가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은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보기를 봅시다. 1번은 신호를 통해 이루어진 간접적 만남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글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 과학자들이 꾸준히 외계 생명체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신호를 쏘고 있다고 했는데, 의미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모순이 됩니다. 2번은 “누가 누구를 찾았는지”에서의 주어와 목적어는 정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구인의 생각은 “지구인이 우주인을 찾은 것이다.”일 것이고, 우주인의 생각은 “우주인이 지구인을 찾은 것이다.”일 것이다. 곧 서로 간의 관점 차이로 인해 서로에서의 주어와 목적어가 다를 것이고 결론적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딱 하나로 확립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정답 선지가 됩니다. 3번은 프로젝트가 너무 구식이어서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1번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발견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4번은 우리의 목표는 생명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성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5번은 엄격히 말해, “외계인들”이 “우리”를 찾았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찾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5번은 오답입니다.

[출처] 자작 지문

34. ②

[해석] California Bay Area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1974년의 설문조사에서, Ellsworth와 Ross는 93%의 지지자들은 “사형제도가 종신형보다 더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다.”에 동의한 반면, 92%의 반대자들이 반대하였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편, 그들은 사람들에게 만약 그것(사형제도)의 억제 수단으로서의 효능에 대해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사형제도에 대한 그들의 근본적인 입장이 변할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대다수의 지지자들은 종신형이 동일하게 충분할(효과적일)지라도 여전히 사형제도에 찬성할 것이고, 대다수의 반대자들은 그것(사형제도)이 종신형보다 훨씬 효과적일지라도 여전히 그것에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같은 가설적인 질문이 1985년 Gallup Poll에 매우 유사한 결과를 가지고 추가되었다. 지지자들은 사형제도가 “살인률을 낮추지 않더라도” 여전히 사형제도에 찬성할 것이고, 반대자들은 그것이 억제 수단이라도 여전히 반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여론조사 데이터는 계속해서 사형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그것의 효율성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지지한다.

[해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점을 잡더라도 선지를 고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형제도가 종신형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주장에 찬성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근데 Ellsworth와 Ross는 특이하게 이 설문조사를 변형했습니다. 만약 사실은 효율적인지에 대한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지지자들 또는 반대자들은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그들의 입장을 옮길 것인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결과는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사형제도나 종신형이나 별반 차이 없다고 말해준다고 해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찬성을 유지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사형제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해준다고 해도, 그들은 마찬가지로 상관하지 않고 반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빈칸 문장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논해야 합니다. 한 번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봅시다. 찬성의 경우 사형제도나 종신형이나 효율성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혀진다고 쳐도 여전히 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앞서 조사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찬성하는 이유인 “사형제도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은 알고 보니 찬성을 하는 이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사형제도가 종신형보다 훨씬 좋다고 밝혀져도 여전히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앞서 조사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대하는 이유인 “사형제도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은 알고 보니 반대를 하는 이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형제도의 효율성은 찬성 측이 찬성을 하고 반대 측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효율성은 입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를 살펴봅시다. 1번은 개인과 사회의 관점들의 혼합이라는 것인데 사회적 관점은 애초에 언급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2번은 효율성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사형제도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찬성을 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의 선지이므로 2번은 정답입니다. 3번은 양측의 서로 다른 의견을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어 생각해보면 정답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양측의 서로 다른 의견을 포용한다는 것은 찬성 측이 반대 측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반대 측이 찬성 측의 의견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찬성 측이 자신의 찬성 의견을 고집하고, 반대 측도 자신의 반대 의견을 고집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오답입니다. 4번은 그들이 사실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오역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선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 파고들어 생각해보면 확실히 지울 수 있는 선지입니다. 찬성 측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4번의 내용을 대입해보면 찬성 측에서 사실은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함에도 찬성 측이므로 모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글의 내용은 찬성 측이 알고 보니 속으로는 반대를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경우에도 찬성을 밀고 나간다는 것이므로 4번은 오답입니다. 5번은 다른 여론조사 참여자들의 의견과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다른 조사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결론적으로 답은 2번입니다.

[출처] Hugo Adam Bedau - The Death Penalty in America: Current Controversies

5페이지 좌

[해석] 몇 대에 걸쳐서, 신기술이 학교를 변화시키거나 쓸모없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지속되었었다. Thomas Edison은 영화가 교육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를 추종하

던 사람들은 라디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다른 이들은 텔레비전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학교 교육의 끝이라고 생각하였다. 최근 몇 년 들어서는, 근본적으로 스크린을 이용해 홀로 작업하는 학생들에게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학습을 제공하는 지능적 교수체제(教授體制)가 교사들의 대체제가 될 것으로 보였다. 허나 각각의 기술의 잇따른 물결들은 선전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몇 백의 돈이 기술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느라 소모되었다. 궁극적으로, 기술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은 사람들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것이 가속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나쁜 전략들을 효율적인 것들만큼이나 쉽게 가속화할 수 있다. 교육을 하는 방법이 - 교육학이 - 궁극적으로 학습 결과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해된다면, 일련의 다른 오해들도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현자인”이고 기술에 요령이 있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고, 인터넷에 상시 접속된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배울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 있다. 이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연구의 많은 보고서들이 그와는 다르다고 증명하였다. 소셜 미디어에의 감각이나 심지어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채굴하였던 많은 경험은 지식, 스킬, 그리고 전문 지식의 특정한 분야를 마스터하는 것과 관련된 사고방식의 습득으로 직접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기술에 익숙한 것은, 도움이 되나, 학습에 필요한 지식 분야의 구조, 관례, 그리고 관점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출처] Ellen Lettvin, Joseph South, Katrina Stevens - Idea to retire: Technology alone can improve student learning

41. ⑤

[해설] 이 글은 기술만으로는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an Technology Be an Alternative Means of Teaching?”이 됩니다.

42. ①

[해설] 2문단의 요점은 학생들이 최근 들어 기술에 굉장히 친숙한 편이라는 믿음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지식을 완전히 습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기술과의 친숙함이 들어가면 되므로 답은 1번, Familiarity with technology가 됩니다.

5페이지 우

[해석] 내가 흥미롭다고 생각한 지능에 관한 작은 시험이 있다. Alan Turing과 초기 인공지능 선구자들은 자주 지능에 대한 실험 건으로 체스를 둘 줄 아는 능력을 인용한다. 그러므로 IBM의 유명한 Deep Blue와 같이 고성능 인공지능의 체스 두는 컴퓨터를 상상해보자. 그리고 토끼를 상상해보자. 이제 토끼가 컴퓨터를 상대로 체스를 두도록 요청 받았을 때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도록 해라. 토끼들은 이것에 능숙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 예를 들어, 퀸의 첫 수는 그것들(토끼의 말들)을 모두 잡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에서, Deep Blue는 토끼보다 훨씬 똑똑하다. 하지만 둘 다를 연못에 떨어뜨리는 것을 상상해보아라. 내 관점에서는, 정말로 가장 똑똑한 쪽은 익사하는 것을 어떻게 모면해야할 지를 찾는 쪽이다!

지능은 규칙을 따르는 능력(체스 두기 프로그램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필요로 할 때, 스스로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내는 능력, 아니면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규칙을 배우는 것이다. 체스 두는 컴퓨터들은 그 어떠한 추진할 방법도 없다는 불리한 조건을 지녀,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그들에게 유일한 선택지는 익사하는 것뿐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eep Blue가 오리발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의 디자이너들이 수영을 하도록 그리고 언제 그렇게 하도록 분명하게 프로그램하지 않은 이상은 스스로를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지능은 따라서 프로그래머들의 생각에 있는 것이고, 그 지능의 최종 결과만이, 분명한 규칙들의 집합으로 암호화되어, 컴퓨터 내에 있게 될 것이다. 토끼들은, 반면에, 목전의 죽음의 경고 신호들을 인식하고, 여러 움직임들을 시도할 것이고, 도움이 될 만한 행동들을 반복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빠르게 배울 것이다. 생명체는 생존하기 위해 방법을 찾을 것이다.

[출처] Steve Grand - Creation: Life and How to Make It

41. ④

[해설] 이 지문에서는 토끼와 체스 두는 컴퓨터의 비교를 통해 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 “What is the Key Factor of Determining Intelligence?”입니다.

42. ②

[해설] 2문단에 따르면 Deep Blue는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수영하는지 코딩을 해놓지 않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토끼들은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여러 시도를 해보고 그 방법을 완벽하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명체와 비(非)생명체 간의 차이는 능동적으로 생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finds a way가 됩니다.